

보도자료

2016년 6월 14일 공보 2016-6-13호
이 자료는 2016년 6월 15일 (조)간부터 취급하
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6년 6월 14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결과는 붙임과
같음

붙임 :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문의처] 통 계 청 소득통계과 박상영 과장(042-481-2206), 정은정 사무관(042-481-2214)
한국은행 국민B/S팀 조태형 팀장(02-759-4375), 진정화 과장(02-759-5730)
최병오 과장(02-759-4415)

"보도자료는 통계청(<http://kostat.go.kr>) 및 한국은행(<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2016. 6.

통 계 청 · 한 국 은 행

차 례

< 요약 >

I.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1
2.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2
3.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3
II. 자산형태별 자산규모	5
1. 총괄	5
2. 건설 및 설비자산	7
3. 지식재산생산물(IPPs)	9
4. 토지자산	10
III.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13
1. 자산규모(비금융자산 기준)	13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19
IV.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20
1. 자산규모(고정자산 기준)	20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21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 통계표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기본적으로 2013년 확정, 2014년 및 2015년 잠정 기준의 통계입니다. 다만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최근 3개년(2013~2015년)이 잠정 기준의 통계입니다.
 - 1995년 이후의 시도별 토지자산 자료가 새로이 공표되었으며, 토지자산(1995~2010년)과 지하자원(2005~2010년)의 경우 추가적인 기준년 설정 및 기초자료의 이용확대 등으로 과거 시계열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UN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 방법 개발의 난점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기업회계의 자산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자산의 추계방법은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년)의 권고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산의 연도별 가액은 연말 기준의 스톡(stock) 통계이므로 플로(flow) 통계와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물량기준의 스톡 통계는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만큼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토지자산의 시가평가 작업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국민소득통계의 기준년 개편(2010년→2015년) 일정에 맞추어 국민대차대조표 조기 신계열 공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 최근 연도의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합니다.

< 요약 >

1. 2015년 국민순자산 및 비금융자산

□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667.2조원(+5.7%) 증가한 1경 2,359.5조원으로 추계(국내총생산(1,558.6조원)의 7.9배)

○ 비금융자산이 1경 2,126.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3,496.1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3,26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233.0조원

* 우리나라 순국제투자(1,952.8억달러: 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 비금융자산을 자산형태별로 보면 생산자산이 2015년말 현재 5,508.9조원으로 전년대비 164.5조원(+3.1%) 늘어난 가운데 비생산자산은 6,617.7조원으로 366.0조원(+5.9%) 증가

○ 생산자산중 건설자산 98.8조원(+2.4%), 설비자산 39.4조원(+6.0%), 지식재산생산물 17.6조원(+6.0%)이 각각 증가

○ 비생산자산중 토지자산은 364.9조원(+5.9%) 증가

국민순자산 증감내역

(단위: 조원, %, 배)

	2013	2014 ^p	증감액	증감률	2015 ^p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1,058.1 [7.7]	11,692.4 [7.9]	634.3	5.7	12,359.5 [7.9]	667.2	5.7
비금융자산	11,097.4 [7.8]	11,596.1 [7.8]	498.7	4.5	12,126.5 [7.8]	530.4	4.6
생산자산	5,150.5	5,344.4	193.9	3.8	5,508.9	164.5	3.1
고정자산	4,826.0	5,016.7	190.8	4.0	5,172.5	155.8	3.1
건설자산	3,911.1	4,067.6	156.5	4.0	4,166.4	98.8	2.4
설비자산	642.5	654.8	12.3	1.9	694.2	39.4	6.0
지식재산생산물	272.4	294.3	22.0	8.1	311.9	17.6	6.0
재고자산	324.6	327.7	3.1	1.0	336.4	8.7	2.6
비생산자산	5,946.8	6,251.7	304.9	5.1	6,617.7	366.0	5.9
토지자산	5,900.9	6,209.8	308.9	5.2	6,574.7	364.9	5.9
지하자원	23.7	19.2	-4.6	-19.3	20.0	0.8	4.3
임목자산	22.2	22.7	0.5	2.2	23.0	0.3	1.1
순금융자산	-39.3 [-0.0]	96.3 [0.1]	135.5	-	233.0 [0.1]	136.7	-
금융자산	11,590.4	12,467.9	877.5	7.6	13,496.1	1,028.2	8.2
금융부채	11,629.7	12,371.7	742.0	6.4	13,263.1	891.4	7.2

주: 1)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2) 증감액 및 증감률(%)은 전년대비

□ 토지자산을 권역별로 보면 2014년말 현재 수도권 지역이 3,638.7조원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

- 2014년중 토지자산은 전년에 비해 5.2%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지역 (+8.0%)이 증가세를 주도(수도권은 +3.4%)
-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수도권 이외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도권은 그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

지역별 토지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2012	2013	증감률 ²⁾	2014 ^p	증감률 ²⁾
전국	5,727.6 (100.0)	5,900.9 (100.0)	3.0	6,209.8 (100.0)	5.2
특·광역시	2,617.2 (45.7)	2,697.2 (45.7)	3.1	2,848.1 (45.9)	5.6
세종	41.1 (0.7)	45.1 (0.8)	9.7	50.7 (0.8)	12.5
도	3,110.4 (54.3)	3,203.7 (54.3)	3.0	3,361.8 (54.1)	4.9
제주	70.2 (1.2)	77.5 (1.3)	10.4	94.2 (1.5)	21.5
수도권	3,458.9 (60.4)	3,519.8 (59.6)	1.8	3,638.7 (58.6)	3.4
수도권 이외	2,268.8 (39.6)	2,381.0 (40.4)	4.9	2,571.1 (41.4)	8.0

주: 1) 당해년말 명목가액 기준 2) 전년대비(%)
 3) () 내는 토지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 2015년중 국민순자산은 667.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에 의해 259.6조원(38.9%) 늘어나고 거래외 요인에 의해 407.6조원 (61.1%) 증가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p	2015 ^p
순자산 증감	386.2 (100)	390.4 (100)	634.3 (100)	667.2 (100)
거래에 의한 증감	219.2 (56.7)	229.2 (58.7)	240.8 (38.0)	259.6 (38.9)
비금융자산순취득	158.7 (41.1)	136.8 (35.0)	142.8 (22.5)	136.5 (20.5)
금융자산순취득	60.4 (15.6)	92.4 (23.7)	98.1 (15.5)	123.1 (18.5)
거래외 증감	167.0 (43.3)	161.2 (41.3)	393.4 (62.0)	407.6 (61.1)
자산량기타증감 ¹⁾	61.9 (16.0)	81.2 (20.8)	128.4 (20.2)	119.7 (17.9)
명목보유손익 ²⁾	173.2 (44.9)	110.6 (28.3)	227.6 (35.9)	274.2 (41.1)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68.0 (-17.6)	-30.6 (-7.8)	37.5 (5.9)	13.6 (2.0)

주: 1) 간척, 토지의 용도변경,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기록
 2)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냄
 3) () 내는 순자산 증감에서 해당 요인에 의한 증감이 차지하는 비중(%)

II. 제도부문별 순자산 및 비금융자산

□ 제도부문별로 볼 때 2015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7,176.2조원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국민순자산의 58.1%)

- 다음으로 일반정부 3,381.7조원(27.4%), 비금융법인기업 1,466.7조원(11.9%), 금융법인기업이 334.9조원(2.7%)의 순자산을 각각 보유
- 2015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411.5조원)와 일반정부(+162.9조원)는 비금융자산 증가를 중심으로, 금융법인(+61.0조원)은 순금융자산 증가에 힘입어 순자산이 상당폭 늘어났으나 비금융법인(+31.9조원)은 순자산이 소폭 증가에 그침

□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규모는 2015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5,422.8조원, 비금융법인기업 3,634.9조원, 일반정부 2,905.9조원, 금융법인 163.0조원

국민대차대조표

(단위: 조원, %, 배)

		비금융 법인	금융 법인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2014 ^p 년말	비금융자산(A_0)	3,517.1	157.5	2,758.4	5,163.2	11,596.1	-
	순금융자산($B_0=a_0-b_0$)	-2,082.2	116.4	460.5	1,601.5	96.3	-91.0
	금융자산(a_0)	2,141.2	6,148.2	1,280.8	2,897.6	12,467.9	1,093.0
	금융부채(b_0)	4,223.4	6,031.8	820.4	1,296.1	12,371.7	1,184.0
	순자산($C_0=A_0+B_0$)	1,434.9 <12.3>	273.9 <2.3>	3,218.9 <27.5>	6,764.7 <57.9>	11,692.4 <100.0>[7.9]	-91.0
2015 년중 ^p 증감	비금융자산(A_1-A_0)	117.8	5.5	147.5	259.6	530.4	-
	순금융자산(B_1-B_0)	-86.0	55.5	15.3	151.9	136.7	-136.4
	금융자산(a_1-a_0)	146.3	512.9	90.4	278.5	1,028.2	9.9
	금융부채(b_1-b_0)	232.3	457.5	75.1	126.6	891.4	146.3
	순자산(C_1-C_0)	31.9	61.0	162.9	411.5	667.2	-136.4
2015 ^p 년말	비금융자산(A_1)	3,634.9	163.0	2,905.9	5,422.8	12,126.5	-
	순금융자산($B_1=a_1-b_1$)	-2,168.2	171.9	475.8	1,753.4	233.0	-227.4
	금융자산(a_1)	2,287.5	6,661.2	1,371.2	3,176.1	13,496.1	1,102.9
	금융부채(b_1)	4,455.7	6,489.3	895.4	1,422.7	13,263.1	1,330.3
	순자산($C_1=A_1+B_1$)	1,466.7 <11.9>	334.9 <2.7>	3,381.7 <27.4>	7,176.2 <58.1>	12,359.5 <100.0>[7.9]	-227.4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III.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 2014년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 3,698.3조원(73.7%), 광업·제조업 937.8조원(18.7%), 전기·가스 및 수도업 279.1조원(5.6%), 농림어업 60.4조원(1.2%), 건설업 41.0조원(0.8%) 등으로 나타남

* 부동산·임대(가계 보유 주거용 건물 등), 공공행정·국방서비스(정부 보유 자산) 등 포함

- 2014년중 광업·제조업은 4.4%, 서비스업은 4.0%,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2.8%, 건설업은 2.9% 각각 증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증감률 ²⁾	2014 ^p	증감률 ²⁾
전 산 업	4,489.5 (100)	4,668.5 (100)	4,826.0 (100)	3.4	5,016.7 (100)	4.0
농 립 어 업	56.2 (1.3)	57.3 (1.2)	58.3 (1.2)	1.8	60.4 (1.2)	3.7
광 업·제 조업	821.9 (18.3)	867.6 (18.6)	898.6 (18.6)	3.6	937.8 (18.7)	4.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59.2 (5.8)	265.4 (5.7)	271.5 (5.6)	2.3	279.1 (5.6)	2.8
건 설 업	37.6 (0.8)	38.9 (0.8)	39.9 (0.8)	2.5	41.0 (0.8)	2.9
서 비 스 업	3,314.6 (73.8)	3,439.2 (73.7)	3,557.7 (73.7)	3.4	3,698.3 (73.7)	4.0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전년대비(%)
3) () 내는 해당 산업의 자산보유 비중(%)

- 전산업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2013년 및 2014년 3.7%에서 2015년 3.6%로 낮아짐

- 2014년중 광업·제조업(+0.4%p), 건설업(+0.2%p), 농림어업(+1.0%p), 전기가스 수도업(+0.1%p)의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하락(-0.2%p)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¹⁾ 증가율

(단위: %, %p)

	2011	2012	2013 ^P (A)	2014 ^P (B)	2015 ^P (C)	B-A (%p)	C-B (%p)
전 산 업	4.6	4.0	3.7	3.7	3.6	-	-0.1
농 립 어 업	-2.6	-1.9	-1.2	-0.1		1.0	
광 업 · 제 조 업	6.0	5.4	4.5	4.9		0.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5	2.3	3.0	3.1		0.1	
건 설 업	0.2	1.6	0.8	1.0		0.2	
서 비 스 업	4.2	3.6	3.4	3.3		-0.2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IV.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국민순자산 관련

① 국민순자산(國富)은 명목GDP의 7.9배를 유지

□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2,359.5조원)은 국내총생산(1,558.6조원) 대비 7.9배로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2011~2013년은 7.7배)

- 한편 2014년중 국민순자산/GDP 배율의 상승(7.7배 → 7.9배)은 2014년 대외순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2014년 이후 국민순자산 증가에서 대외투자의 영향력이 증대

*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는 2013년 - 372억달러(GDP의 -2.9%)에서 2014년 876억달러(+6.2%), 2015년 1,953억달러(+14.2%)로 크게 증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 배율



주: 1995~2007년중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은 국제투자대조표(IIP)에 나타난 순국제투자의 원화환산액임

국민순자산/GDP 비율의 구성내역 변화

(%, %p)

	2012	2013	2014 ^P	증감(%p)	2015 ^P	증감(%p)
국민순자산	774.4	773.6	786.8	13.2	793.0	6.2
비금융자산	781.8	776.3	780.3	4.0	778.0	-2.3
생산자산	362.5	360.3	359.6	-0.7	353.5	-6.9
비생산자산	419.2	416.0	420.7	4.7	424.6	3.9
순금융자산	-7.3	-2.7	6.5	9.2	14.9	8.5

② 생산자산의 가격변동을 마이너스 전환

□ 생산자산의 가격*변동률은 2014년 0.7% 상승에서 2015년 0.1% 하락 전환

* 생산자산의 명목가액을 연쇄실질가액으로 나누어 계산

○ 단, 비생산자산의 가격은 지가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 회복

비금융자산별 자산가격 변동률¹⁾

(%)

	96~01	02~07	08~11	12~15	2012	2013	2014	2015
비금융자산	2.2	9.0	3.5	1.7	1.6	0.9	2.0	2.3
생 산 자 산	3.6	4.5	4.4	0.4	0.7	0.2	0.7	-0.1
비생산자산	1.2	13.2	2.8	2.8	2.3	1.4	3.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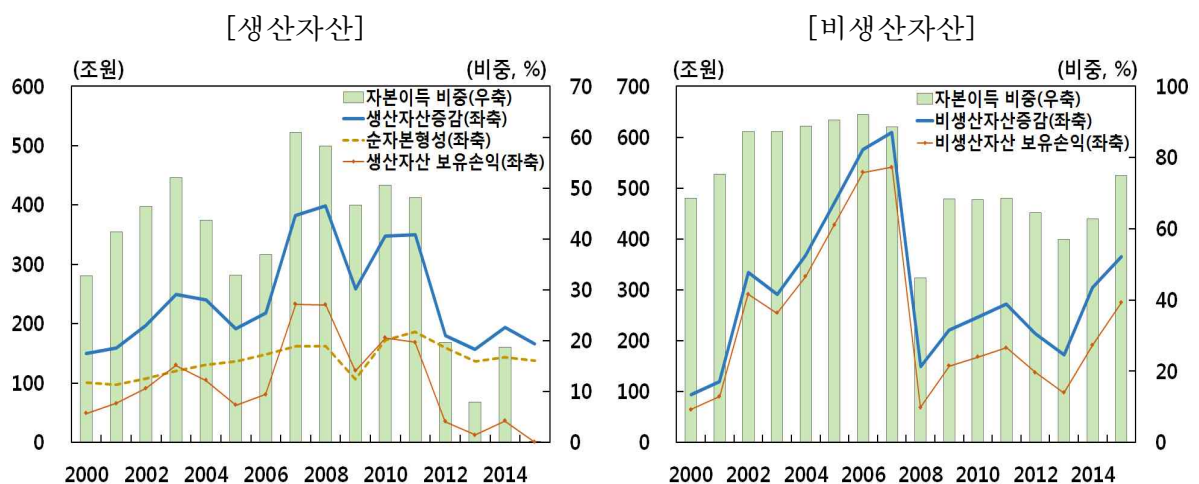
주: 1) 비금융자산의 연평균 자산가격 상승률

□ 이의 영향으로 생산자산의 명목보유손익*(자본이익)도 2015년중 감소로 전환

* 생산자산 명목보유손익(조원): 168.8(11) → 35.3(12) → 12.5(13) → 36.3(14) → -0.1(15)

** 다만 2015년중 주택시장의 회복과 세종시, 제주도 등의 지가상승 등에 따라 토지를 중심으로 비생산자산의 명목보유손익은 증가

생산자산 및 비생산자산의 증감과 자본이익¹⁾ 영향



주: 1)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액 증가분을 의미함

고정자산 관련

③ 고정자산 가액은 2015년 명목GDP의 3.3배로 하락

□ 우리나라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건설자산 배율의 하락에 주로 기인하여 2011~2014년 3.4배에서 2015년 3.3배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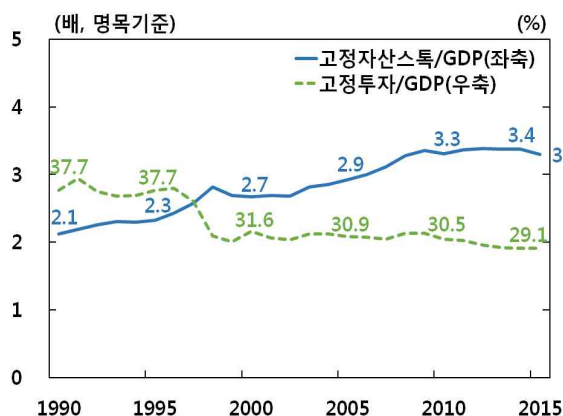
* 건설자산(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기계류, 운송장비) 및 지식재산생산물로 구성

** 1950년 이후 미국의 고정자산/GDP 배율은 2.6~3.3배(평균 2.9배) 범위에서 기업 및 정부의 투자활동 변화를 반영하여 등락

○ 고정자산의 GDP 대비 비율은 주요 선진국 평균*(3.2배)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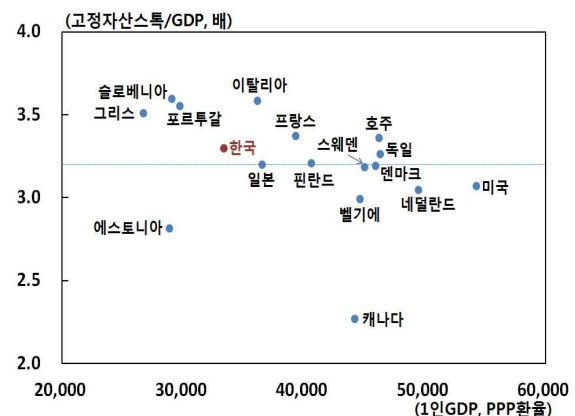
* 자료 입수가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상하위 4개국을 제외한 17개국의 단순평균은 3.2배

우리나라의 고정자산 가액/GDP 배율



주: 1)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년 기준
자료: OECD 통계DB

고정자산 가액/GDP 배율 국제비교¹⁾



고정자산 가액/GDP 배율

	2012	2013	2014	2015
고정자산	3.39	3.38	3.38	3.32
건설 및 설비자산	3.21	3.19	3.18	3.12
건설자산	2.74	2.74	2.74	2.67
설비자산	0.47	0.45	0.44	0.45
지식재산생산물	0.18	0.19	0.20	0.20

④ 지식재산생산물 비중이 계속 확대

□ 지식재산생산물(IPPs)이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말 현재 6.0%로 장기간 확대 추세가 지속

○ 반면 설비자산과 건설자산의 비중은 2012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 시기별로 등락

* 고정자산 항목별 비중(%)

	2012	2013	2014	2015
건설자산	80.9	81.0	81.1	80.5
설비자산	13.7	13.3	13.1	13.4
지식재산생산물	5.4	5.6	5.9	6.0

○ 우리나라의 실물자본축적이 상당 수준 진전되면서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3.3배 내외 수준에 머무는 양상이나 지식재산생산물의 동 배율은 꾸준한 상승세 유지

자산별 비중 및 GDP 대비 배율

	자산별 비중 (구성비,%)				자산별 GDP 대비 배율 (배)			
	90년	10년	14년	15년	90년	10년	14년	15년
고정자산	100.0	100.0	100.0	100.0	2.1	3.3	3.4	3.3
건설자산	69.6	81.0	81.1	80.5	1.5	2.7	2.7	2.7
설비자산	27.0	14.0	13.1	13.4	0.6	0.5	0.4	0.4
IPPs	3.4	5.0	5.9	6.0	0.072	0.166	0.198	0.200
R&D	2.7	3.7	4.6	4.7	0.058	0.123	0.154	0.156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R&D 지출규모는 세계 6위, GDP 대비 비중 (4.29%)은 이스라엘(4.11%, 국방제외)과 함께 세계 1위 수준

R&D 지출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십억 US달러,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
R&D 지출 규모	457.0	211.3	165.0	110.1	63.9	60.5	50.9
GDP 대비 비중	2.74	2.05	3.58	2.84	2.26	4.29	1.70

주: 미국은 2013년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2014년 기준 자료임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토지자산 관련

⑤ 토지자산이 전체 비금융자산 비중의 과반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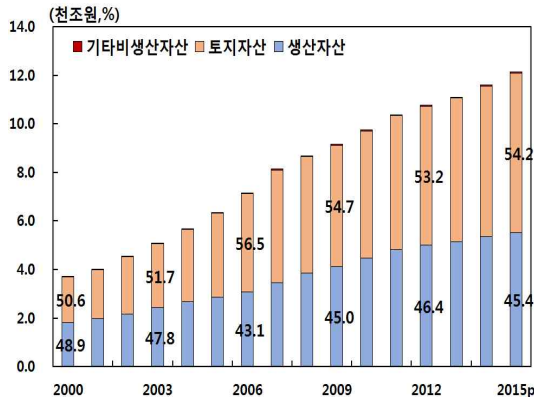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7.1%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

* 토지자산의 비금융자산 대비 비중(%): 57.1(07) → 53.2(13) → 53.6(14) → 5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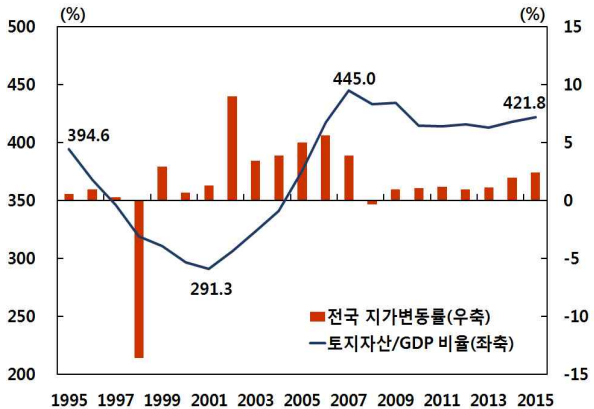
○ 토지자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07년 445.0%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소폭 상승

* 토지자산의 GDP 대비 비율(%): 445.0(07) → 412.8(13) → 417.9(14) → 421.8(15)

토지자산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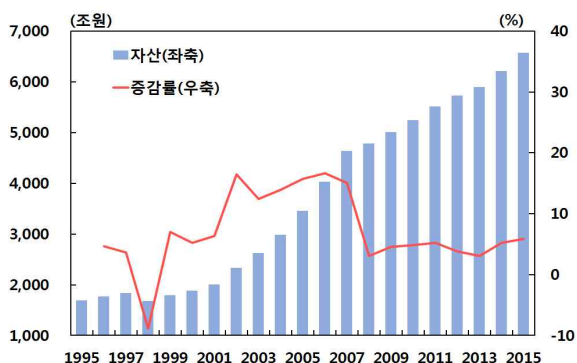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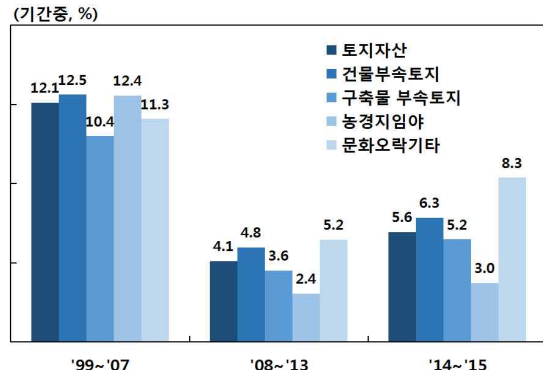
□ 토지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나 혁신도시, 세종시 및 제주도 개발 등에 힘입어 2014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

○ 토지유형별로는 공원, 체육용지 등의 문화오락용 토지 및 건물부속토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토지 유형별 평균 증감률



⑥ 토지자산 규모는 서울, 증감률은 제주가 가장 커

□ 시도별로는 서울이 2014년말 기준 1,685.3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7.1%를 차지

○ 서울, 경기, 경남 등 자산규모 상위 3개 시도가 전체 토지자산의 59.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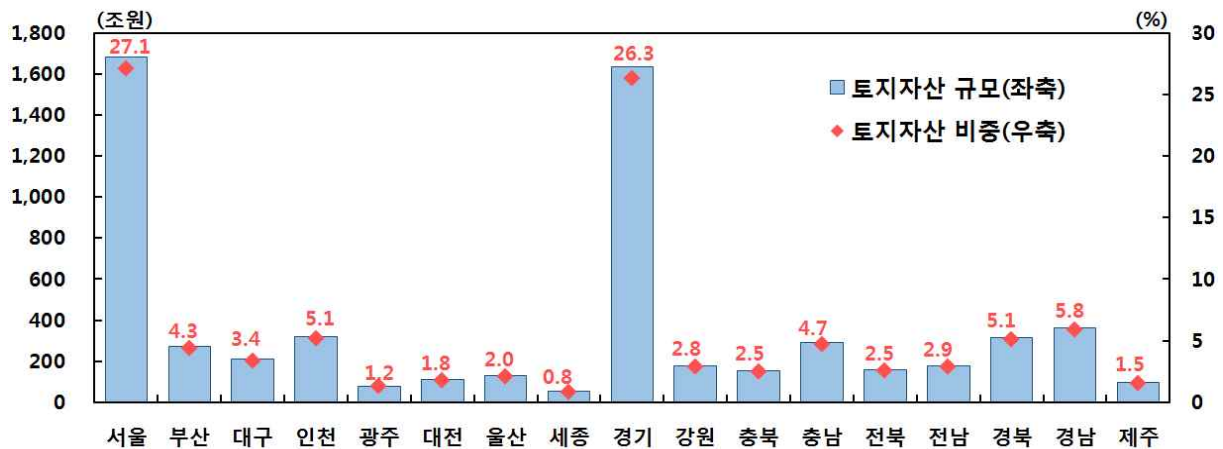
□ 2014년중 제주의 토지자산 증가율은 2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대구(+13.1%), 세종(+12.5%), 울산(+12.4%) 등이 10%대의 증가율 시현

* 세종 및 혁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울산(울산대교 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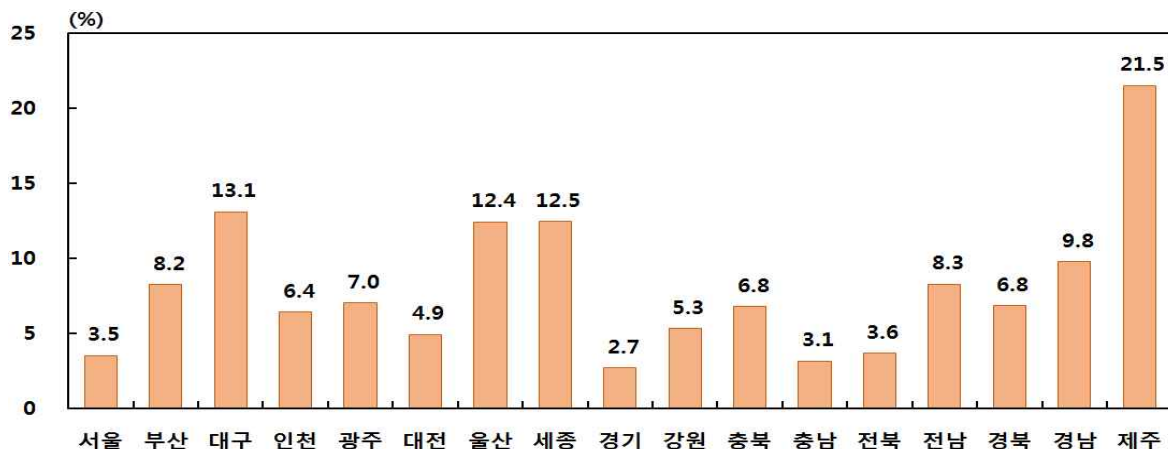
· 지가상승률: (제주)3.7%, (세종)4.5%, (대구)3.1%, (울산)1.8%

· 혁신도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비중(2014년 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전년대비 증감률(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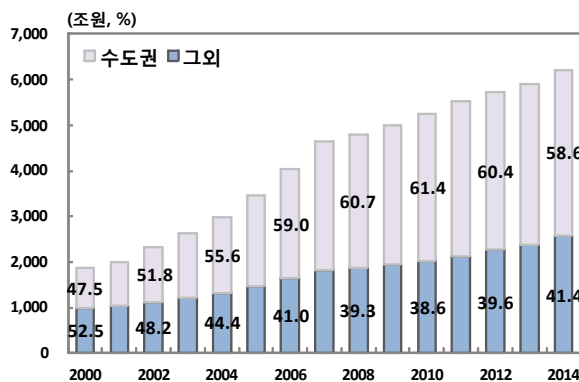
7 토지자산의 수도권 집중도는 완화

2012년 세종시 출범, 2013년 이후 지방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토지자산의 수도권 집중도는 완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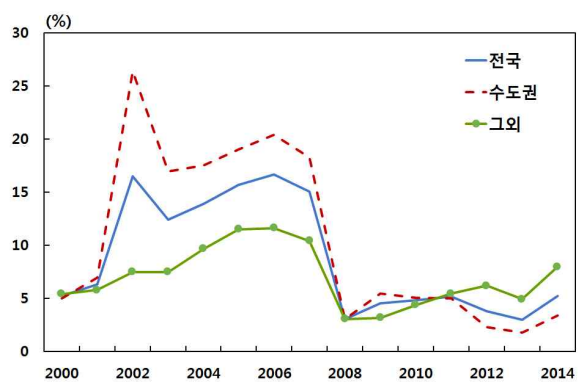
- 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 비중은 2010년 61.4%에서 2014년 58.6%로 낮아지는 모습
- 권역별로 보면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증가율이 수도권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으나 2011년 이후 역전
- 특·광역시 및 9개도의 비중 및 증감률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2014년말 기준 특·광역시는 45.9%, 9개도는 54.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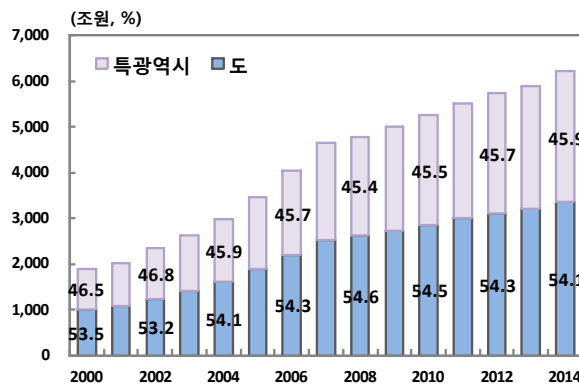
수도권 및 그외지역 토지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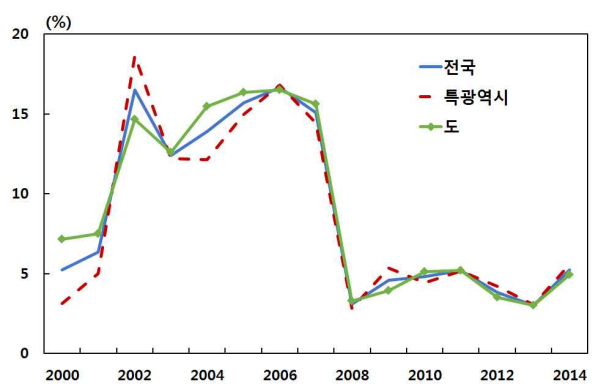
수도권 및 그외지역 토지자산 증감률 추이



특·광역시 및 7개도 토지자산 추이



특·광역시 및 7개도 토지자산 증감률 추이



제도부문(경제주체) 관련

⑧ 비금융법인기업의 자산보유 비중 하락

□ 비금융자산중 비금융법인기업의 보유 비중은 2013년 30.5% → 2014년 30.3% → 2015년 30.0%로 2년 연속 하락(2014~15년중 -0.6%p)

○ 반면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중은 2015년 들어 반등(+0.2%p)

비금융자산중 제도부문별 보유 비중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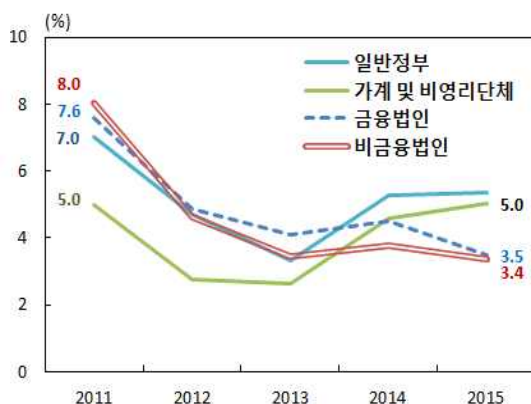
	2011	2012	2013(A)	2014	2015(B)	B-A
비금융법인	30.2	30.4	30.5	30.3	30.0	-0.6
생산자산	22.1	22.3	22.3	22.2	22.0	-0.3
비생산자산	8.1	8.2	8.2	8.1	7.9	-0.2
금융법인	1.3	1.3	1.4	1.4	1.3	0.0
일반정부	23.3	23.6	23.6	23.8	24.0	0.4
가계 및 비영리단체	45.1	44.7	44.5	44.5	44.7	0.2

□ 비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증가율은 2011년 8.0%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상당폭 낮아져 2015년에는 3.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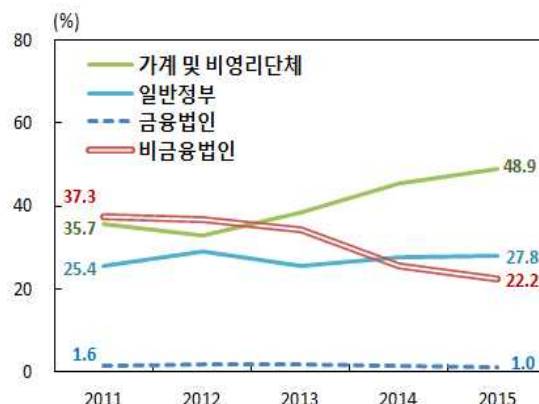
○ 이에 따라 비금융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 면에서도 하락세를 지속(2011년 37.3% → 2015년 22.2%)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2011년 35.7%에서 2015년 48.9%로 상승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률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가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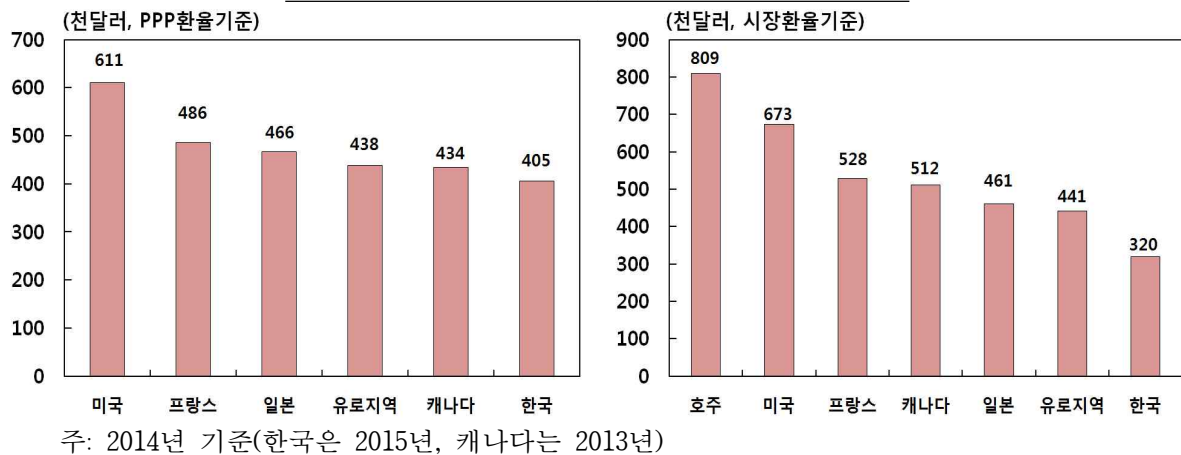
9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3억 6,152만원

□ 2015년말 현재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 가구당(2.55인) 순자산은 3억 6,152만원*으로 추정

* 순자산(7,176,199.9십억원) ÷ 2015년 추계인구(50,617,045명) × 2.55명(평균가구원수)

- 구매력평가환율(2015년중 891.65원/달러)로는 가구당 순자산이 40.5만달러, 시장환율(2015년중 1,131.52원/달러)로는 32.0만달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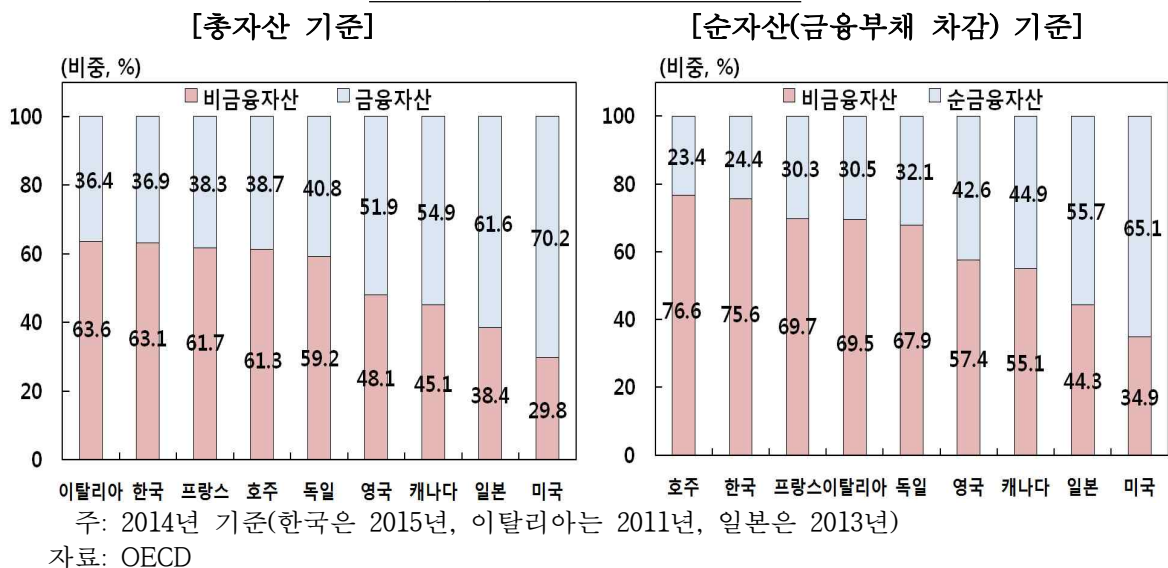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2008년말 이후 꾸준히 하락

* 총자산 기준: 70.5%(08년) → 66.7%(11년) → 64.1%(14년) → 63.1%(15년)

순자산 기준: 82.8%(08년) → 79.2%(11년) → 76.3%(14년) → 75.6%(15년)

- 그럼에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금융자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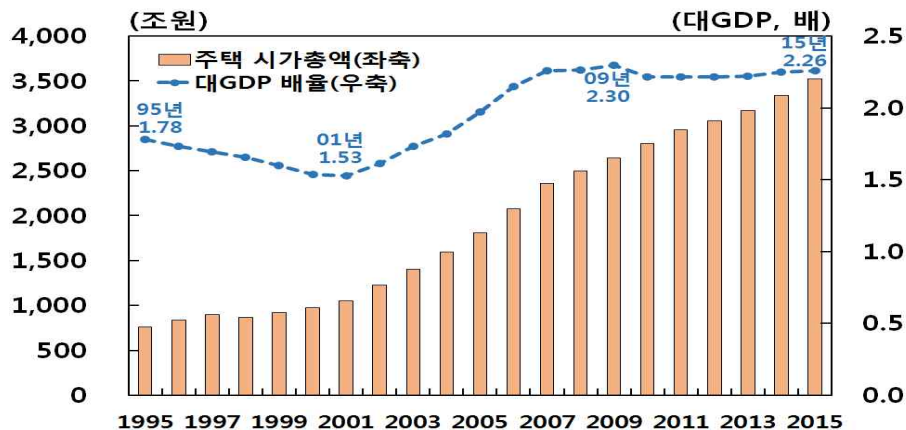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대표 자산인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5년말 현재 3,519.5조원으로 GDP 대비 2.26배 수준

○ 동 배율은 2001년 1.5배에서 2009년 2.3배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였으나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2014년부터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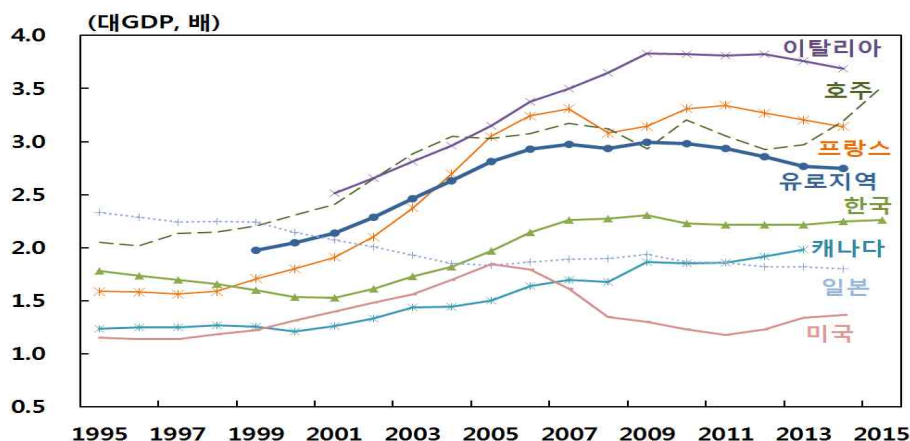
* 주택가격 상승률: - 1.4%(12년) → 0.3%(13년) → 1.7%(14년) → 3.6%(15년)

우리나라의 주택 시가총액



□ 우리나라의 주택 시가총액/GDP 배율(2015년 2.3배)은 미국(1.4배), 일본(1.8배), 캐나다(2.0배)보다는 높지만 이탈리아(3.7배), 호주(3.5배), 프랑스(3.1배), 유로 지역(2.7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¹⁾ 국제 비교



주: 한국·호주: 경제 전체의 주택시가총액,

미국: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부동산

유로지역·이탈리아: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주택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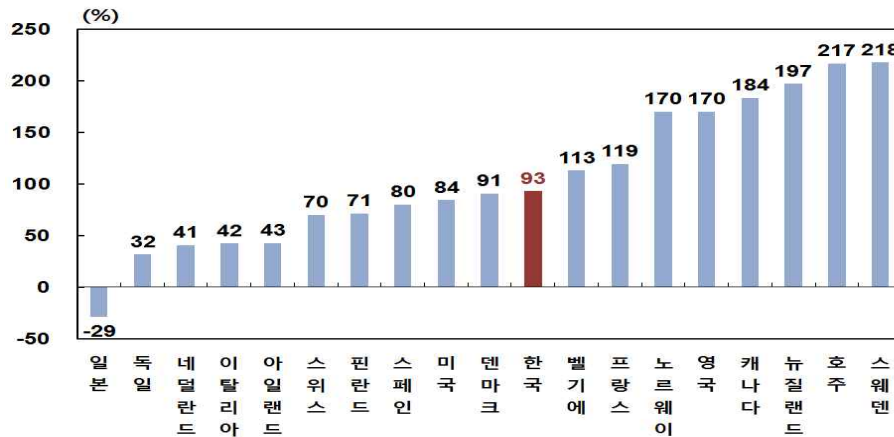
일본: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주택 건물분 및 건물부속토지

프랑스·캐나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보유 주택 건물분 + 보유 토지 전체

자료: OECD, 미국 BEA, ECB, 일본 내각부, 호주통계청, 이탈리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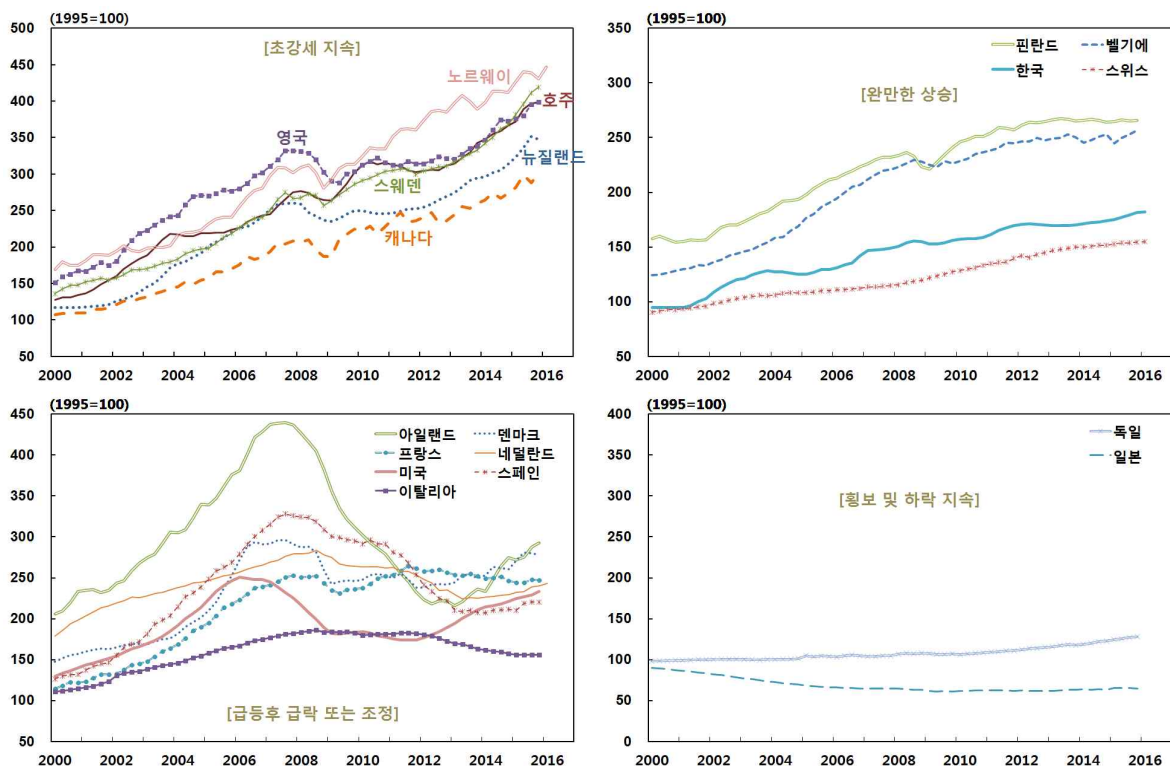
- 한편 2000~2015년중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누적 상승률(93%)은 스웨덴(218%), 호주(217%), 뉴질랜드(197%), 캐나다(184%), 영국(170%) 등에 비해 낮은 수준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2000~2015년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부 유럽은 아직 주택가격이 조정되고 있으나 북유럽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빠른 상승세 지속
- 한국, 벨기에 등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독일 및 일본은 횡보 또는 하락하는 모습

주요국의 주택가격 추이



자료: BIS

자본서비스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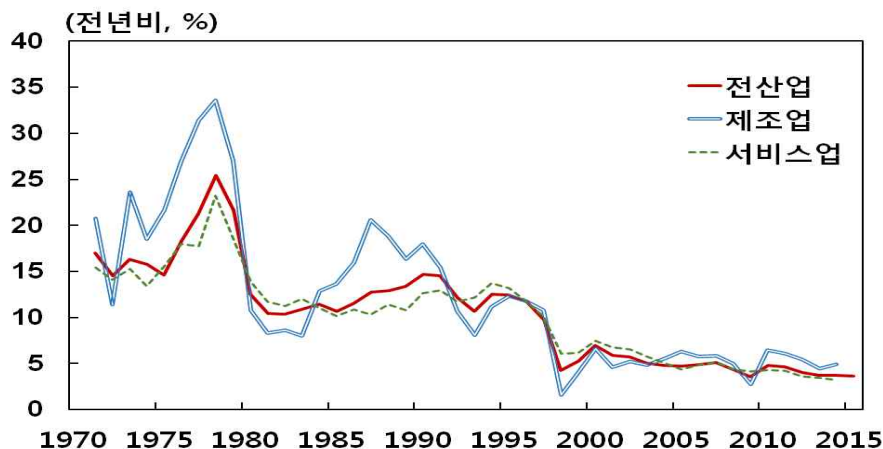
10 자본서비스물량*(생산에 투입되는 자본량)의 증가율은 둔화 지속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투입량의 증가율인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2012년 4.0%, 2013년 및 2014년 3.7%, 2015년 3.6%로 계속 완만히 둔화

*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전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 각각의 실질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을 비중으로 하여 가중합하여 계산됨. 감가상각률이 높은 설비자산이나 지식재산생산물의 실질증가율이 높은 경우에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모든 자본이 완전 가동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된 것임에 유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 2015년의 경우 R&D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생산물(IPPs) 투자가 둔화*되면서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에서 IPPs의 기여도가 낮아진 상황을 반영

* IPPs 명목투자 증가율: 11.0%(12년) → 6.3%(13년) → 6.8%(14년) → 2.8%(15년)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에 대한 자산별 기여도 및 기여율(고정자산 기준)

(기간중 단순평균, %, %p)

		00~07	08~15	2012	2013 ^P	2014 ^P	2015 ^P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5.4	4.0	4.0	3.7	3.7	3.6
기여도 (%p) 및 기여율 (%)	건설자산	2.4 (45.5)	1.8 (44.0)	1.7 (41.9)	1.6 (43.9)	1.6 (44.0)	1.6 (44.9)
	설비자산	1.7 (31.7)	1.3 (32.5)	1.4 (33.5)	1.1 (30.6)	1.1 (30.4)	1.2 (34.1)
	지식재산생산물	1.2 (22.8)	0.9 (23.5)	1.0 (24.6)	0.9 (25.5)	1.0 (25.6)	0.8 (21.0)
	(R&D)	0.7 (13.6)	0.8 (20.0)	0.8 (19.9)	0.8 (21.0)	0.8 (22.0)	0.7 (18.1)

주: () 내는 기여율(%)

I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 2,359.5조원으로 국내 총생산(1,558.6조원)의 7.9배로 추계

- 비금융자산이 1경 2,126.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3,496.1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3,26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233.0조원

* 우리나라 순국제투자(1,952.8억달러: 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 2015년중 국민순자산은 667.2조원 증가(1경 1,692.4조원 → 1경 2,359.5조원)

- 비금융자산이 530.4조원 증가한 데다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순금융자산도 136.7조원 늘어난 데 기인

국민대차대조표

(단위: 조원, %, 배)

		비금융 법인	금융 법인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2014 ^P 년말	비금융자산(A_0)	3,517.1	157.5	2,758.4	5,163.2	11,596.1	-
	순금융자산($B_0=a_0-b_0$)	-2,082.2	116.4	460.5	1,601.5	96.3	-91.0
	금융자산(a_0)	2,141.2	6,148.2	1,280.8	2,897.6	12,467.9	1,093.0
	금융부채(b_0)	4,223.4	6,031.8	820.4	1,296.1	12,371.7	1,184.0
	순자산($C_0=A_0+B_0$)	1,434.9 <12.3>	273.9 <2.3>	3,218.9 <27.5>	6,764.7 <57.9>	11,692.4 <100.0>[7.9]	-91.0
연중 ^P 증감	비금융자산(A_1-A_0)	117.8	5.5	147.5	259.6	530.4	-
	순금융자산(B_1-B_0)	-86.0	55.5	15.3	151.9	136.7	-136.4
	금융자산(a_1-a_0)	146.3	512.9	90.4	278.5	1,028.2	9.9
	금융부채(b_1-b_0)	232.3	457.5	75.1	126.6	891.4	146.3
	순자산(C_1-C_0)	31.9	61.0	162.9	411.5	667.2	-136.4
2015 ^P 년말	비금융자산(A_1)	3,634.9	163.0	2,905.9	5,422.8	12,126.5	-
	순금융자산($B_1=a_1-b_1$)	-2,168.2	171.9	475.8	1,753.4	233.0	-227.4
	금융자산(a_1)	2,287.5	6,661.2	1,371.2	3,176.1	13,496.1	1,102.9
	금융부채(b_1)	4,455.7	6,489.3	895.4	1,422.7	13,263.1	1,330.3
	순자산($C_1=A_1+B_1$)	1,466.7 <11.9>	334.9 <2.7>	3,381.7 <27.4>	7,176.2 <58.1>	12,359.5 <100.0>[7.9]	-2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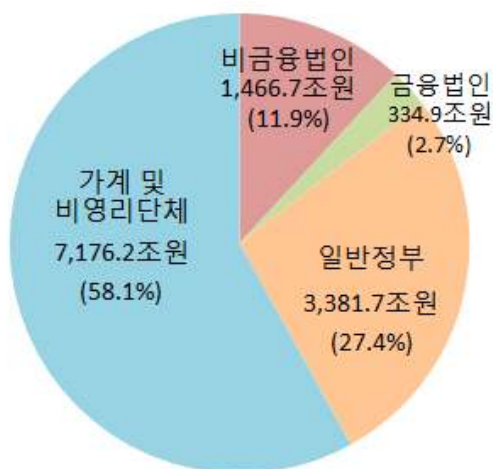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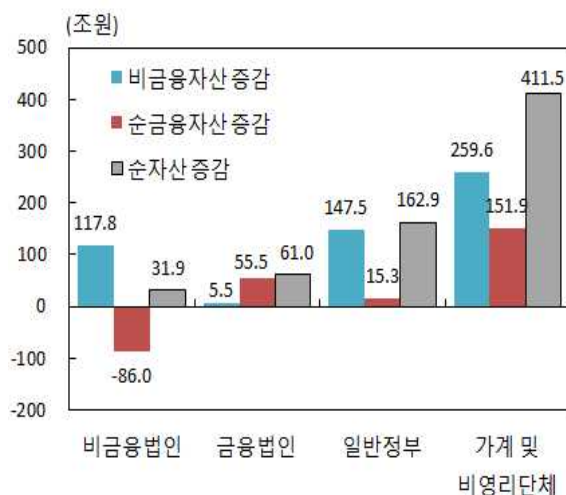
2.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 제도부문별은 2015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7,176.2조원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국민순자산의 58.1%)
 - 다음으로 일반정부 3,381.7조원(27.4%), 비금융법인기업 1,466.7조원(11.9%), 금융법인기업이 334.9조원(2.7%)의 순자산을 각각 보유
- 2015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비금융자산 증가를 중심으로, 금융법인은 순금융자산 증가에 힘입어 순자산이 상당폭 증가하였으나 비금융법인은 순자산이 소폭 증가
 - 2015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411.5조원 증가(비금융자산 +259.6조원, 순금융자산 +151.9조원)
 - 일반정부의 순자산이 162.9조원 증가(비금융자산 +147.5조원, 순금융자산 +15.3조원)하고 금융법인 순자산도 61.0조원 증가(비금융자산 +5.5조원, 순금융자산 +55.5조원)
 - 비금융법인의 경우 순자산이 31.9조원 증가(비금융자산 +117.8조원, 순금융자산 -86.0조원)

2015년말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2015년중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3.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 2015년중 국민순자산은 667.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에 의해 259.6조원(38.9%) 증가하고 거래외 요인에 의해 407.6조원(61.1%) 증가

- 거래에 의한 증감(259.6조원)은 비금융자산 순취득 136.5조원, 금융자산 순취득 123.1조원
- 거래외 증감(407.6조원)의 경우 자산량기타증감 119.7조원, 명목보유손익 274.2조원,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13.6조원을 각각 기록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p	2015 ^p
순자산 증감	386.2 (100)	390.4 (100)	634.3 (100)	667.2 (100)
거래에 의한 증감	219.2 (56.7)	229.2 (58.7)	240.8 (38.0)	259.6 (38.9)
비금융자산 순취득	158.7 (41.1)	136.8 (35.0)	142.8 (22.5)	136.5 (20.5)
금융자산 순취득	60.4 (15.6)	92.4 (23.7)	98.1 (15.5)	123.1 (18.5)
거래외 증감	167.0 (43.3)	161.2 (41.3)	393.4 (62.0)	407.6 (61.1)
자산량기타증감 ¹⁾	61.9 (16.0)	81.2 (20.8)	128.4 (20.2)	119.7 (17.9)
명목보유손익 ²⁾	173.2 (44.9)	110.6 (28.3)	227.6 (35.9)	274.2 (41.1)
중립보유손익	148.8 (38.5)	123.7 (31.7)	92.0 (14.5)	149.1 (22.3)
실질보유손익	24.4 (6.3)	-13.1 (-3.4)	135.6 (21.4)	125.1 (18.8)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68.0(-17.6)	-30.6 (-7.8)	37.5 (5.9)	13.6 (2.0)

- 주: 1)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기록
 2) 간척, 토지의 용도변경,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내며 이중 중립보유손익은 자산가격이 CPI상승률만큼 오를 때의 자본이익임. 실질보유손익은 전체 자본이익(명목보유손익)에서 중립보유손익을 차감한 것임
 3) () 내는 순자산 증감에서 해당 요인에 의한 증감이 차지하는 비중(%)

2015년 제도부문별 국민대차대조표

(단위: 조원)

2014년말 국민순자산($A_0+B_0+C_0+D_0$) 11,692.4 ↓			자산	부채
	비금융법인	비금융자산	3,517.1	
		금융자산/부채	2,141.2	4,223.4
		(순자산, A_0)		1,434.9
	금융법인	비금융자산	157.5	
		금융자산/부채	6,148.2	6,031.8
		(순자산, B_0)		273.9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2,758.4	
		금융자산/부채	1,280.8	820.4
		(순자산, C_0)		3,218.9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5,163.2	
		금융자산/부채	2,897.6	1,296.1
		(순자산, D_0)		6,764.7

비금융자산	530.4		금융자산/부채	136.7
총고정자본형성*	453.3	+	금융자산 순취득**	123.1
(-)고정자본소모*	305.8		거래 외 증감**	13.6
재고증감*	-11.1		** 자금순환표 잔액표 및 거래표 기준	
자산량기타증감	119.7			
명목보유손익	274.2			
* GDP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기준				

2015년말 국민순자산($A_1+B_1+C_1+D_1$) 12,359.5 ↓			자산	부채
	비금융법인	비금융자산	3,634.9	
		금융자산/부채	2,287.5	4,455.7
		(순자산, A_1)		1,466.7
	금융법인	비금융자산	163.0	
		금융자산/부채	6,661.2	6,489.3
		(순자산, B_1)		334.9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2,905.9	
		금융자산/부채	1,371.2	895.4
		(순자산, C_1)		3,381.7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5,422.8	
		금융자산/부채	3,176.1	1,422.7
		(순자산, D_1)		7,176.2

II 자산형태별 자산규모

1. 총괄

□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은 1경 2,126.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8배 수준

○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6,574.7조원, 54.2%)과 건설자산(4,166.4조원, 34.4%)이 전체의 88.6% 차지

*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은 GDP 대비 각각 4.2배 및 2.7배 수준

○ 이 외에 설비자산(694.2조원, 5.7%), 재고자산(336.4조원, 2.8%) 및 지식재산생산물(311.9조원, 2.6%) 등이 전체의 11.4% 차지

자산형태별 자산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2015 ^p
비금융자산	10,768.8 [7.8]	11,097.4 [7.8]	11,596.1 [7.8]	12,126.5 [7.8]
생산자산	4,993.9 (46.4)	5,150.5 (46.4)	5,344.4 (46.1)	5,508.9 (45.4)
건설자산	3,776.4 (35.1)	3,911.1 (35.2)	4,067.6 (35.1)	4,166.4 (34.4)
설비자산	640.6 (5.9)	642.5 (5.8)	654.8 (5.6)	694.2 (5.7)
지식재산생산물	251.4 (2.3)	272.4 (2.5)	294.3 (2.5)	311.9 (2.6)
재고자산	325.4 (3.0)	324.6 (2.9)	327.7 (2.8)	336.4 (2.8)
비생산자산	5,774.9 (53.6)	5,946.8 (53.6)	6,251.7 (53.9)	6,617.7 (54.6)
토지자산	5,727.6 (53.2)	5,900.9 (53.2)	6,209.8 (53.6)	6,574.7 (54.2)
지하자원	26.0 (0.2)	23.7 (0.2)	19.2 (0.2)	20.0 (0.2)
입목자산	21.3 (0.2)	22.2 (0.2)	22.7 (0.2)	23.0 (0.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 2015년 중 비금융자산은 토지자산과 건설자산 등의 증가로 비금융자산이 전년에 비해 530.4조원(4.6%) 증가

* 토지자산(68.8%) 및 건설자산(18.6%)이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의 87.4% 기여

○ 토지자산은 6,574.7조원으로 전년대비 364.9조원(5.9%)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211.0(12년) → 173.2(13년) → 308.9(14년) → 364.9(15년)

○ 건설자산은 4,166.4조원으로 전년대비 98.8조원(2.4%)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39.7(12년) → 134.6(13년) → 156.5(14년) → 98.8(15년)

※ 토지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용의 지가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자산의 경우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관련 단가의 하락으로 자산의 규모증가는 소폭에 그침

* 건설투자 증감률(실질): -3.9%(12년) → 5.5%(13년) → 1.1%(14년) → 3.9%(15년)

건설자산 디플레이터: 108.9(12년) → 109.8(13년) → 111.3(14년) → 111.0(15년)

* 지가변동률(건 물): 0.6%(12년) → 1.0%(13년) → 2.0%(14년) → 2.6%(15년)

(구축물): 1.0%(12년) → 1.1%(13년) → 2.0%(14년) → 2.4%(15년)

자산형태별 자산증감¹⁾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393.8 (100.0)	328.6 (100.0)	498.7 (100.0)	4.5	530.4 (100.0)	4.6
생산자산	179.8 (45.7)	156.7 (47.7)	193.9 (38.9)	3.8	164.5 (31.0)	3.1
건설자산	139.7 (35.5)	134.6 (41.0)	156.5 (31.4)	4.0	98.8 (18.6)	2.4
설비자산	17.5 (4.5)	1.9 (0.6)	12.3 (2.5)	1.9	39.4 (7.4)	6.0
지식재산생산물	21.8 (5.5)	20.9 (6.4)	22.0 (4.4)	8.1	17.6 (3.3)	6.0
재고자산	0.8 (0.2)	-0.8 (-0.2)	3.1 (0.6)	1.0	8.7 (1.6)	2.6
비생산자산	214.0 (54.3)	172.0 (52.3)	304.9 (61.1)	5.1	366.0 (69.0)	5.9
토지자산	211.0 (53.6)	173.2 (52.7)	308.9 (61.9)	5.2	364.9 (68.8)	5.9
지하자원	2.0 (0.5)	-2.2 (-0.7)	-4.6 (-0.9)	-19.3	0.8 (0.2)	4.3
입목자산	0.9 (0.2)	0.9 (0.3)	0.5 (0.1)	2.2	0.3 (0.0)	1.1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전년대비(%)

3)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2. 건설 및 설비자산

□ 2015년말 현재 건설 및 설비자산은 4,860.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배 수준

* GDP 대비 건설·설비자산 배율(배): 3.2(12년) → 3.2(13년) → 3.2(14년) → 3.1(15년)

○ 건설자산은 토목건설 1,605.5조원(33.0%), 비주거용건물 1,318.2조원(27.1%) 및 주거용건물 1,242.8조원(25.6%) 등 총 4,166.4조원으로 전체의 85.7% 차지

○ 설비자산은 기계류 461.7조원(9.5%)과 운송장비 218.5조원(4.5%) 등 총 694.2조원으로 전체의 14.3% 차지

건설 및 설비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2015 ^P
건설 및 설비자산	4,417.1 [3.2]	4,553.6 [3.2]	4,722.4 [3.2]	4,860.6 [3.1]
건설자산	3,776.4 (85.5)	3,911.1 (85.9)	4,067.6 (86.1)	4,166.4 (85.7)
주거용건물	1,110.0 (25.1)	1,149.5 (25.2)	1,200.6 (25.4)	1,242.8 (25.6)
비주거용건물	1,154.2 (26.1)	1,207.7 (26.5)	1,270.1 (26.9)	1,318.2 (27.1)
토목건설	1,512.2 (34.2)	1,553.9 (34.1)	1,596.9 (33.8)	1,605.5 (33.0)
설비자산	640.6 (14.5)	642.5 (14.1)	654.8 (13.9)	694.2 (14.3)
운송장비	176.9 (4.0)	186.1 (4.1)	198.0 (4.2)	218.5 (4.5)
기계류	452.2 (10.2)	443.9 (9.7)	443.0 (9.4)	461.7 (9.5)
육성생물자원	11.5 (0.3)	12.6 (0.3)	13.8 (0.3)	14.1 (0.3)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배)
3) () 내는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 2015년중 건설 및 설비자산은 주거 및 비주거용건물 등 건설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138.3조원(2.9%) 증가

* 비주거용건물(34.8%) 및 주거용건물(30.5%)이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증가의 65.3% 기여

○ 건설자산은 4,166.4조원으로 전년대비 98.8조원(2.4%)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39.7(12년) → 134.6(13년) → 156.5(14년) → 98.8(15년)

— 비주거용건물과 주거용건물은 각각 48.1조원(3.8%)과 42.2조원(3.5%) 증가

○ 설비자산은 694.2조원으로 전년대비 39.4조원(6.0%)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7.5(12년) → 1.9(13년) → 12.3(14년) → 39.4(15년)

— 운송장비가 20.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3% 증가

건설 및 설비자산 증감¹⁾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건설 및 설비자산	157.2 (100)	136.5 (100)	168.8 (100)	3.7	138.3 (100)	2.9
건설자산	139.7 (88.8)	134.6 (98.6)	156.5 (92.7)	4.0	98.8 (71.5)	2.4
주거용건물	34.5 (22.0)	39.5 (28.9)	51.1 (30.3)	4.4	42.2 (30.5)	3.5
비주거용건물	51.8 (33.0)	53.5 (39.2)	62.4 (37.0)	5.2	48.1 (34.8)	3.8
토목건설	53.3 (33.9)	41.6 (30.5)	43.0 (25.5)	2.8	8.6 (6.2)	0.5
설비자산	17.5 (11.2)	1.9 (1.4)	12.3 (7.3)	1.9	39.4 (28.5)	6.0
운송장비	8.0 (5.1)	9.2 (6.7)	11.9 (7.1)	6.4	20.5 (14.8)	10.3
기계류	9.4 (6.0)	-8.4 (-6.1)	-0.9 (-0.5)	-0.2	18.7 (13.5)	4.2
육성생물자원	0.2 (0.1)	1.1 (0.8)	1.2 (0.7)	9.5	0.3 (0.2)	2.3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전년대비(%)

3) () 내는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3. 지식재산생산물(IPPs)

□ 지식재산생산물(IPPs)은 2015년말 현재 311.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

* GDP 대비 IPPs 비율: 2.0%(70년) → 7.2%(90년) → 16.6%(10년) → 20.0%(15년)

○ 지식재산생산물은 R&D자산 243.6조원(78.1%)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 68.3조원(21.9%)으로 구성

지식재산생산물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2015 ^p
지식재산생산물	251.4 [0.18]	272.4 [0.19]	294.3 [0.20]	311.9 [0.20]
연구개발(R&D)	191.4 (76.1)	209.8 (77.0)	229.5 (78.0)	243.6 (78.1)
기타지식재산생산물	60.0 (23.9)	62.5 (23.0)	64.8 (22.0)	68.3 (21.9)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배)
3)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대비 구성비(%)

□ 지식재산생산물(IPPs)은 2015년중 R&D 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17.6조원(6.0%) 증가

* R&D자산이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증가의 79.9% 기여

○ R&D자산은 243.6조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9.4(12년) → 18.4(13년) → 19.7(14년) → 14.0(15년)

※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 연구개발(R&D)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연구개발비 증가율: 13.8%(11년) → 11.1%(12년) → 6.9%(13년) → 7.5%(14년)

지식재산생산물 증감¹⁾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지식재산생산물	21.8 (100)	20.9 (100)	22.0 (100)	8.1	17.6 (100)	6.0
연구개발(R&D)	19.4 (88.8)	18.4 (87.8)	19.7 (89.8)	9.4	14.0 (79.9)	6.1
기타지식재산생산물	2.4 (11.2)	2.6 (12.2)	2.2 (10.2)	3.6	3.5 (20.1)	5.4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전년대비(%)
3)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대비 기여율(%)

4. 토지자산

□ 2015년말 현재 토지자산은 6,574.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배 수준으로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배): 4.16(12년)→4.13(13년)→4.18(14년)→4.22(15년)

- 건물·구축물부속토지는 주거용건물부속토지 2,276.7조원(34.6%), 비주거용 건물부속토지 1,455.0조원(22.1%) 및 구축물부속토지 731.3조원(11.1%) 등 총 4,462.9조원으로 전체의 67.9% 차지
- 농경지와 임야는 각각 994.6조원(15.1%)과 492.7조원(7.5%)으로 전체 토지 자산의 22.6% 차지

토지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2015 ^p
토지자산	5,727.6 [4.2]	5,900.9 [4.1]	6,209.8 [4.2]	6,574.7 [4.2]
건물·구축물부속토지	3,826.3 (66.8)	3,965.5 (67.2)	4,207.6 (67.8)	4,462.9 (67.9)
주거용건물부속토지	1,943.3 (33.9)	2,021.9 (34.3)	2,140.8 (34.5)	2,276.7 (34.6)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228.5 (21.4)	1,282.6 (21.7)	1,373.4 (22.1)	1,455.0 (22.1)
구축물부속토지	654.5 (11.4)	661.1 (11.2)	693.4 (11.2)	731.3 (11.1)
농경지	929.8 (16.2)	937.4 (15.9)	956.5 (15.4)	994.6 (15.1)
임야	462.3 (8.1)	465.4 (7.9)	473.5 (7.6)	492.7 (7.5)
문화오락용토지	164.2 (2.9)	165.7 (2.8)	184.6 (3.0)	215.0 (3.3)
기타토지	345.0 (6.0)	366.8 (6.2)	387.6 (6.2)	409.5 (6.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내는 토지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 토지자산은 2015년중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364.9조원(5.9%) 증가

* 주거용건물부속토지(37.2%)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22.4%)가 토지자산 전체 증가의 59.6% 기여

○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2,276.7조원으로 전년대비 135.9조원(6.3%)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66.4(12년) → 78.6(13년) → 118.9(14년) → 135.9(15년)

○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1,455.0조원으로 전년대비 81.6조원(5.9%)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28.8(12년) → 54.1(13년) → 90.8(14년) → 81.6(15년)

※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의 주를 이루는 대지 증가폭이 최근 크게 증가

* 지가변동률(대): 0.5%(12년) → 1.0%(13년) → 2.0%(14년) → 2.7%(15년)

토지자산 증감¹⁾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토지자산	211.0 (100)	173.2 (100)	308.9 (100)	5.2	364.9 (100)	5.9
건물·구축물부속토지	123.6 (58.6)	139.2 (80.4)	242.1 (78.3)	6.1	255.3(70.0)	6.1
주거용건물부속토지	66.4 (31.5)	78.6 (45.3)	118.9 (38.5)	5.9	135.9(37.2)	6.3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28.8 (13.7)	54.1 (31.3)	90.8 (29.4)	7.1	81.6(22.4)	5.9
구축물부속토지	28.4 (13.4)	6.5 (3.8)	32.4 (10.5)	4.9	37.8(10.4)	5.5
농경지	29.5 (14.0)	7.6 (4.4)	19.1 (6.2)	2.0	38.1(10.4)	4.0
임야	14.4 (6.8)	3.0 (1.7)	8.1 (2.6)	1.7	19.2 (5.3)	4.1
문화오락용토지	25.1 (11.9)	1.5 (0.9)	18.9 (6.1)	11.4	30.4 (8.3)	16.5
기타토지	18.5 (8.8)	21.8 (12.6)	20.8 (6.7)	5.7	21.9 (6.0)	5.7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전년대비(%)

3) () 내는 토지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 토지자산의 권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자산규모는 3,638.7조원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이외 지역이 8.0% 증가하여 증가세를 주도

- 수도권 지역의 자산규모는 최근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이외지역의 비중은 증가 추세

* 전년대비 증감(수도권): 161.6조원(11년)→78.5(12년)→61.0(13년)→118.8(14년)
(수도권 이외): 110.4조원(11년)→132.5(12년)→112.2(13년)→190.1(14년)

- 특광역시 및 도의 경우는 자산의 비중 및 증감률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세종시 및 제주도가 높은 증가세 시현

* 전년대비 증감(세종시): 4.0조원(13년)→5.6(14년)
(제주도): 2.7조원(11년)→5.3(12년)→7.3(13년)→16.7(14년)

지역별 토지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2012	2013	증감률 ²⁾	2014 ^p	증감률 ²⁾
전국	5,727.6 (100.0)	5,900.9 (100.0)	3.0	6,209.8 (100.0)	5.2
특광역시	2,617.2 (45.7)	2,697.2 (45.7)	3.1	2,848.1 (45.9)	5.6
세종	41.1 (0.7)	45.1 (0.8)	9.7	50.7 (0.8)	12.5
도	3,110.4 (54.3)	3,203.7 (54.3)	3.0	3,361.8 (54.1)	4.9
제주	70.2 (1.2)	77.5 (1.3)	10.4	94.2 (1.5)	21.5
수도권	3,458.9 (60.4)	3,519.8 (59.6)	1.8	3,638.7 (58.6)	3.4
수도권 이외	2,268.8 (39.6)	2,381.0 (40.4)	4.9	2,571.1 (41.4)	8.0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전년대비(%)
3) () 내는 토지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III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1. 자산규모 (비금융자산 기준)

가) 총 괄

□ 2015년말 현재 제도부문별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5,422.8조원(44.7%), 비금융법인기업 3,634.9조원(30.0%), 일반정부 2,905.9조원(24.0%), 금융법인 163.0조원(1.3%)

○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비생산자산 비중(각각 71.1%, 60.3%)이 높은 반면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은 생산자산 비중(각각 73.5%, 70.0%)이 높게 나타남

—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토지(주거용 토지, 사회기반시설, 농경지, 임야) 비중이 높고 비금융법인의 경우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및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수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비금융자산	3,634.9<30.0>	163.0 <1.3>	2,905.9<24.0>	5,422.8<44.7>	12,126.5 <100>
생산자산	2,671.9 (73.5)	114.0 (70.0)	1,153.1 (39.7)	1,569.8 (28.9)	5,508.9 (45.4)
건설자산	1,589.0 (43.7)	99.7 (61.2)	1,025.5 (35.3)	1,452.2 (26.8)	4,166.4 (42.7)
설비자산	539.2 (14.8)	6.6 (4.0)	77.9 (2.7)	70.5 (1.3)	694.2 (5.7)
지식재산생산물	239.8 (6.6)	7.7 (4.8)	45.8 (1.6)	18.6 (0.3)	311.9 (2.6)
재고자산	304.0 (8.4)	- (-)	3.9 (0.1)	28.5 (0.5)	336.4 (2.8)
비생산자산	963.0 (26.5)	49.0 (30.0)	1,752.8 (60.3)	3,852.9 (71.1)	6,617.7 (54.6)
토지자산	942.2 (25.9)	49.0 (30.0)	1,744.9 (60.0)	3,838.7 (70.8)	6,574.7 (54.2)
지하자원	20.0 (0.6)	- (-)	- (-)	- (-)	20.0 (0.2)
입목자산	0.7 (0.0)	- (-)	7.9 (0.3)	14.3 (0.3)	23.0 (0.2)

주: 1)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2015년말 기준

2) < > 내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비중(%)

3) () 내는 제도부문 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 2015년중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 추이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이 각각 259.6조원(+5.0%), 147.5조원(+5.3%) 증가

○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은 117.8조원(+3.4%), 5.5조원(+3.5%) 증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¹⁾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국 내 경 제	393.8 (100)	328.6 (100)	498.7 (100)	4.5	530.4 (100)	4.6
비 금 융 법 인	144.3 (36.6)	112.6 (34.3)	128.0 (25.7)	3.8	117.8 (22.2)	3.4
금 융 법 인	6.7 (1.7)	6.0 (1.8)	6.8 (1.4)	4.5	5.5 (1.0)	3.5
일 반 정 부	114.0 (29.0)	84.2 (25.6)	138.0 (27.7)	5.3	147.5 (27.8)	5.3
가 계 및 비영 리 단 체	128.8 (32.7)	125.9 (38.3)	226.0 (45.3)	4.6	259.6 (48.9)	5.0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전년대비(%)

3)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 2015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5,422.8조원으로 2014년말(5,163.2조원) 대비 5.0% 증가

○ 생산자산은 2015년말 1,569.8조원으로 2014년말(1,528.3조원)에 비해 2.7% 증가하였으며 이중 건설자산이 2.8%, 지식재산생산물이 6.1%, 재고자산이 4.4% 증가하였으나 설비자산은 1.1% 감소

○ 비생산자산은 2015년말 3,852.9조원으로 토지자산 증가에 힘입어 2014년말(3,634.9조원)에 비해 6.0% 증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4,811.3 [3.5]	4,937.2 [3.5]	5,163.2 [3.5]	4.6	5,422.8 [3.5]	5.0
생산자산	1,441.5	1,475.1	1,528.3	3.6	1,569.8	2.7
건설자산	1,320.2	1,360.2	1,412.2	3.8	1,452.2	2.8
설비자산	77.5	73.6	71.3	-3.2	70.5	-1.1
지식재산생산물	15.0	16.2	17.5	8.3	18.6	6.1
재고자산	28.8	25.1	27.3	9.0	28.5	4.4
비생산자산	3,369.8	3,462.1	3,634.9	5.0	3,852.9	6.0
토지자산	3,356.7	3,448.4	3,620.8	5.0	3,838.7	6.0
지하자원	-	-	-	-	-	-
임목자산	13.1	13.7	14.0	2.2	14.3	1.9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전년대비(%)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다) 비금융법인기업

□ 2015년말 현재 비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3,634.9조원으로 2014년말(3,517.1조원) 대비 3.4% 증가

○ 생산자산은 2015년말 2,671.9조원으로 2014년말(2,577.1조원)에 비해 3.7% 증가

— 설비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이 각각 6.8%, 6.2%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건설자산과 재고자산의 증가율은 각각 2.5%, 2.3%로 낮은 수준

○ 비생산자산은 2015년말 963.0조원으로 2014년말(940.0조원) 대비 2.4% 증가

— 토지자산과 지하자원이 각각 2.4%, 4.3% 증가하였으나 입목자산이 12.5% 감소

비금융법인기업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3,276.5 [2.4]	3,389.1 [2.4]	3,517.1 [2.4]	3.8	3,634.9 [2.3]	3.4
생산자산	2,396.3	2,480.1	2,577.1	3.9	2,671.9	3.7
건설자산	1,422.8	1,482.3	1,549.5	4.5	1,589.0	2.5
설비자산	486.9	491.6	504.6	2.7	539.2	6.8
지식재산생산물	192.1	208.9	225.7	8.1	239.8	6.2
재고자산	294.5	297.4	297.3	-0.1	304.0	2.3
비생산자산	880.1	909.0	940.0	3.4	963.0	2.4
토지자산	853.4	884.4	920.0	4.0	942.2	2.4
지하자원	26.0	23.7	19.2	-19.3	20.0	4.3
입목자산	0.7	0.8	0.8	2.5	0.7	-12.5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2) 전년대비(%)

라) 일반정부

□ 2015년말 현재 일반정부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2,905.9조원으로 2014년말(2,758.4조원) 대비 5.3% 증가

○ 생산자산은 2015년말 1,153.1조원으로 2014년말(1,128.5조원)에 비해 2.2% 증가

○ 비생산자산은 2015년말 1,752.8조원으로 토지자산 증가에 힘입어 2014년말(1,629.8조원) 대비 7.5% 증가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2,536.2 [1.8]	2,620.4 [1.8]	2,758.4 [1.9]	5.3	2,905.9 [1.9]	5.3
생산자산	1,053.9	1,089.6	1,128.5	3.6	1,153.1	2.2
건설자산	946.5	977.4	1,009.8	3.3	1,025.5	1.6
설비자산	69.2	70.8	72.4	2.3	77.9	7.6
지식재산생산물	36.1	39.3	43.2	10.1	45.8	5.9
재고자산	2.0	2.1	3.1	48.7	3.9	24.1
비생산자산	1,482.3	1,530.8	1,629.8	6.5	1,752.8	7.5
토지자산	1,474.9	1,523.2	1,622.0	6.5	1,744.9	7.6
지하자원	-	-	-	-	-	-
임목자산	7.4	7.7	7.9	2.2	7.9	1.1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전년대비(%)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마) 금융법인기업

□ 2015년말 현재 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163.0조원으로 2014년말(157.5조원) 대비 3.5% 증가

○ 생산자산은 2015년말 114.0조원으로 2014년말(110.4조원)에 비해 3.2% 증가한 가운데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이 각각 3.7%, 2.3% 증가하였으나 지식재산생산물은 1.8% 감소

○ 비생산자산은 2015년말 49.0조원으로 2014년말(47.0조원) 대비 4.1% 증가

금융법인기업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2	2013	2014 ^p	증감률 ²⁾	2015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144.8 [0.1]	150.7 [0.1]	157.5 [0.1]	4.5	163.0 [0.1]	3.5
생산자산	102.1	105.8	110.4	4.4	114.0	3.2
건설자산	86.9	91.1	96.1	5.4	99.7	3.7
설비자산	6.9	6.5	6.4	-1.8	6.6	2.3
지식재산생산물	8.3	8.1	7.9	-2.4	7.7	-1.8
재고자산	-	-	-	-	-	-
비생산자산	42.6	44.9	47.0	4.7	49.0	4.1
토지자산	42.6	44.9	47.0	4.7	49.0	4.1
지하자원	-	-	-	-	-	-
입목자산	-	-	-	-	-	-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전년대비(%)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고정자산 기준]

*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본(생산자본스톡)이 실제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산한 지수(생산함수 $[Y=f(L, K)]$ 의 자본투입 요소 K에 해당)

□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경제전체 기준)은 2014년 3.7%, 2015년 3.6%로 완만한 둔화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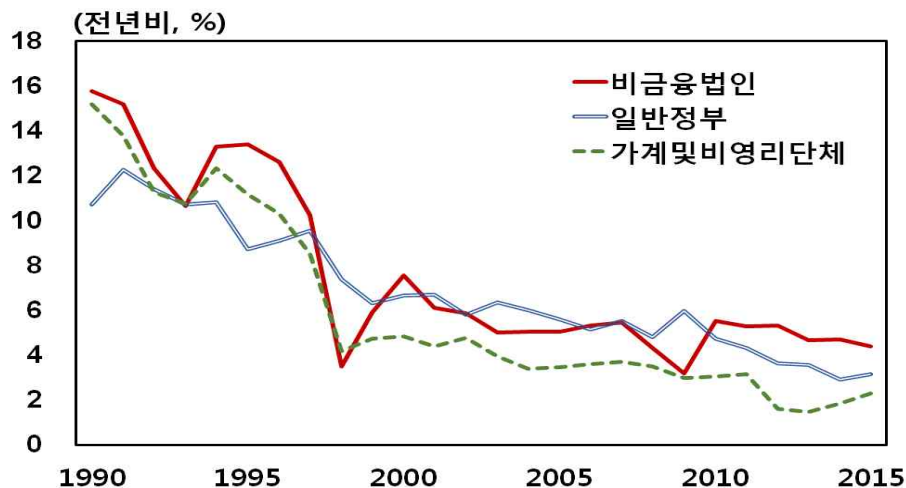
-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2015년중 각각 3.2%, 2.3%로 2014년(2.9%, 1.8%)에 비해 각각 0.3%p, 0.5%p 상승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2015년중 각각 4.4%, 1.1%로 2014년(4.7%, 1.7%)에 비해 0.3%p, 0.6%p 하락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¹⁾ 증가율

(단위: %, %p)

	2012	2013 ^P	2014 ^{P(A)}	2015 ^{P(B)}	B-A(%p)
경 제 전 체	4.0	3.7	3.7	3.6	-0.1
비 금 융 법 인	5.3	4.7	4.7	4.4	-0.3
금 융 법 인	1.1	1.2	1.7	1.1	-0.6
일 반 정 부	3.6	3.6	2.9	3.2	0.3
가계및비영리단체	1.6	1.5	1.8	2.3	0.5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IV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1. 자산규모 (고정자산 기준)

□ 2014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 3,698.3조원(73.7%), 광업·제조업 937.8조원(18.7%), 전기·가스 및 수도업 279.1조원(5.6%), 농림어업 60.4조원(1.2%), 건설업 41.0조원(0.8%) 등으로 나타남

○ 전산업 기준으로 2014년중 고정자산이 4.0% 증가한 가운데 광업·제조업 4.4%(898.6조원 → 937.8조원), 서비스업 4.0%(3,557.7조원 → 3,698.3조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 2.8%(271.5조원 → 279.1조원), 건설업 2.9%(39.9조원 → 41.0조원) 각각 증가

○ 서비스업 내에서는 전통서비스업이 4.3% 증가하고, 사회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각각 3.5%, 3.2% 증가

경제활동별 자산규모¹⁾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증감률 ²⁾	2014 ^p	증감률 ²⁾
전 산 업	4,489.5 (100)	4,668.5 (100)	4,826.0 (100)	3.4	5,016.7 (100)	4.0
농 립 어 업	56.2 (1.3)	57.3 (1.2)	58.3 (1.2)	1.8	60.4 (1.2)	3.7
광 업 · 제 조 업	821.9 (18.3)	867.6 (18.6)	898.6 (18.6)	3.6	937.8 (18.7)	4.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³⁾	259.2 (5.8)	265.4 (5.7)	271.5 (5.6)	2.3	279.1 (5.6)	2.8
건 설 업	37.6 (0.8)	38.9 (0.8)	39.9 (0.8)	2.5	41.0 (0.8)	2.9
서 비 스 업	3,314.6 (73.8)	3,439.2 (73.7)	3,557.7 (73.7)	3.4	3,698.3 (73.7)	4.0
전 통 서 비 스 업 ⁴⁾	1,944.1 (43.3)	2,012.8 (43.1)	2,084.0 (43.2)	3.5	2,174.1 (43.3)	4.3
지식기반서비스업 ⁵⁾	336.7 (7.5)	350.0 (7.5)	360.5 (7.5)	3.0	371.9 (7.4)	3.2
사 회 서 비 스 업 ⁶⁾	1,033.8 (23.0)	1,076.5 (23.1)	1,113.2 (23.1)	3.4	1,152.3 (23.0)	3.5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전년대비(%)

3) 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자원재활용서비스업 포함

4)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부동산·임대, 사업지원, 문화기타서비스

5)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 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사회서비스

7) () 내는 해당 산업의 자산보유 비중(%)

2.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고정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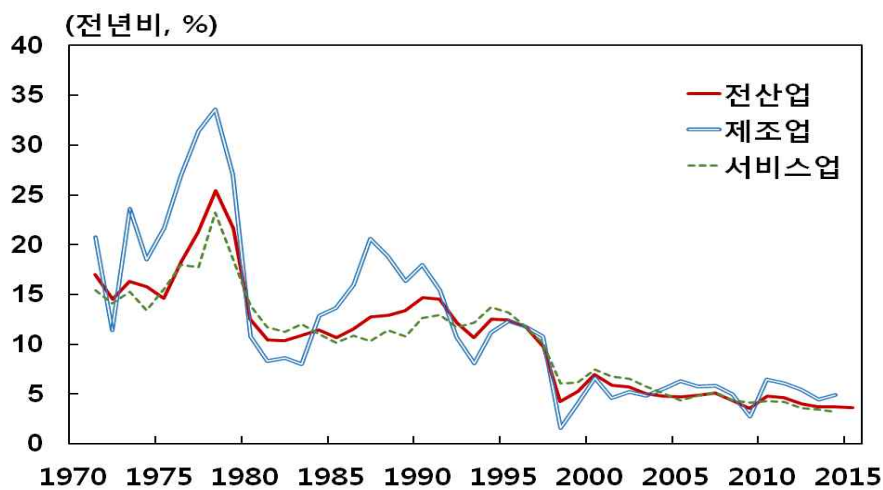
-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보면 2014년중 광업·제조업(+0.4%p), 건설업(+0.2%p), 농림어업(+1.0%p), 전기가스수도업(+0.1%p)의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하락(-0.2%p)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¹⁾ 증가율

(단위: %, %p)

	2011	2012	2013 ^p (A)	2014 ^p (B)	B-A (%p)
전 산 업	4.6	4.0	3.7	3.7	0.0
농 립 어 업	-2.6	-1.9	-1.2	-0.1	1.0
광 업 · 제 조 업	6.0	5.4	4.5	4.9	0.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5	2.3	3.0	3.1	0.1
건 설 업	0.2	1.6	0.8	1.0	0.2
서 비 스 업	4.2	3.6	3.4	3.3	-0.2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스톡 통계) 및 변동 상황(플로 통계)을 기록한 표임
 -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추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IMF특별인출권,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주식(출자지분 포함), 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자산 등이 해당
 -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 : 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 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
 - 비생산자산 : 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 비금융자산계정 :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 제도부문계정 :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 경제활동계정 : 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0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 대부분의 생산자산에 대해서는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영구 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적용하여 생산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을 모두 계산
 - 다만,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과 임목 자산)은 순자본스톡만 계산
- 순자본스톡(자산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액으로,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 자산의 폐기액과 감가상각액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본스톡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하고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그 연령을 감안하여 생산능력(효율)을 평가한 것임
 -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의 저하분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되는 스톡 통계임

— 순자본스톡이나 생산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자본투입물량도 작성

- 자본투입물량은 과거 투자 활동으로 축적된 생산자본스톡을 실제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자본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측한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으로 기록됨

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임목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는 것임

- 특히 자산의 폐기확률, 생산능력 저하, 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자산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를 장기 투자시계열과 각각 결합하여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을 계산함

① 연령-폐기함수와 총자본스톡

- 연령-폐기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자산이 폐기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총자본스톡)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②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 연령-효율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가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노동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자본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자본서비스라고 말함. 예를 들어 주택은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함

- 연령-폐기함수와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총자산의 생산능력(생산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③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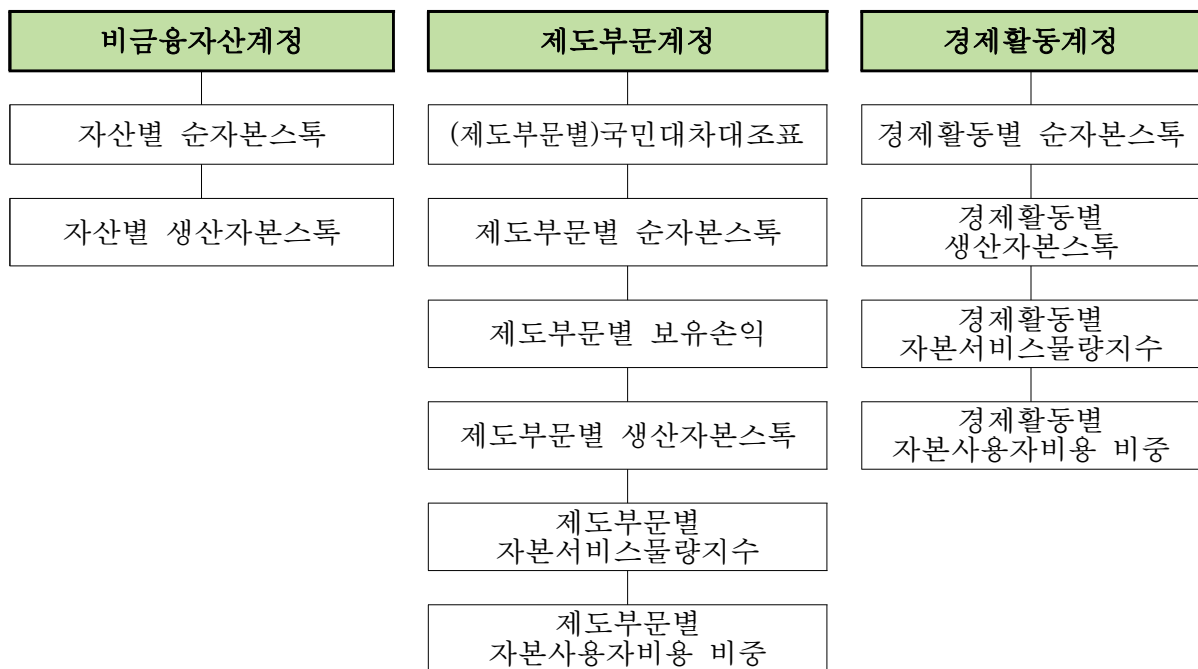
- 자산의 가격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연령이 늘어나면 (미래)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락함(감가상각)
 - 특히, (미래)수익은 자본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령-가격함수는 연령-효율함수에 연동하여 산출됨
 - 연령-가격함수와 투자시계열을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즉 순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 물량가격법은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물량(수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채고자산 및 토지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
- 지하자원 및 임목자산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의 권고에 따라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계산
- 광물과 에너지자원에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자원지대)은 지하자원이 채굴되지 않은 매장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채굴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 임목자산은 아직 벌목되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재 시장거래가격에서 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후 임목상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별 스톡 이외에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을 계산
- 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본스톡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고정자본형성표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자산별×경제주체별, 자산별×경제활동별 투자시계열에 기초하여 스톡가액을 추계

-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수준에서 측정하였으며 특정 경제주체 또는 특정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형태로 계산한 것임
- 자산의 사용자비용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자본재를 임차할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자본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기회비용), 자본재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감가상각)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함
-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와 연쇄통크비스트 지수 등 두 가지로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작성하여 제공

5. 작성주기와 공표 시점

-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연간기준으로 공동 작성하며 매년 6월 중순경 공표

6. 주요 발표 통계



7.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자본스톡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과 그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참고>

자본스톡 추계에 적용된 자산별 내용연수, 원프리곡선 유형 및 효율계수

	시기별 내용연수												원프리 유형	효율 계수
	60이전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11~		
건 물														
주거용 건물	40				43		48	53	55	55			R3	0.75
농림어업,광업,제조업	36				40		45	47						
민간서비스용 건물	40				44		48	50						
공공서비스용 건물	44				47		52	54	55	55				
토목건설														
도로 및 공항	45				48		53	58	60	60			R3	0.75
철도 및 지하철	55				58		63	65						
항 만	40		43		48	53	55	55						
하천사방	30	33			35		37	37						
상하수도	25				27		29	30						
농림토목					60									
도시토목	45				48		53	55						
전력시설					40									
통신시설					30									
기타토목					45									
영 림					60									
토목부대비용					17					S3	1.00			
운송장비														
승용차(기업용)	12	12	11	9		8	7	7		8		9	L2	0.50
승용차(영업용)	8	8	7	7		6	5	5		5	6	6	L4	
승 합 차	10	10	9	9	8	8	7	7	8	10	11	11	R3	
트럭 및 기타	12			9		9	8	8	9	11			S2	
선 박					26									
어 선					15									
철도차량					26								R3	
항 공 기					23 (최대 30년만 계산)									
기타운수장비	10	10	9	7		6	5	5		6		7		
기계류														
펌프 및 압축기							14						L2	0.50
산업용 운반기계							15							
공기조절냉장냉동장비							12							
기타 일반산업용기계							13							
금속공작 및 성형기계							15							
농업기계							13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4							
음식물 처리기계							12							
섬유기계							14							
출판인쇄기계							13							
반도체 제조용 기계							10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1							
산업용 전기 변환장치							15							
기타 산업용 전기기기	우측수명+2						10							
가정용 전기기기							12							
TV							12							
영상 및 음향기기							13							
유선통신기기							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9							
PC 및 주변기기							5						S0	
내연기관 및 터빈							15						L2	
의료기기							14							
계측 및 시험분석기기							13							
광학기기							11							
금속제품							12							
섬유제품							11							
가 구							9							
기타 제조기계							10							

자본스톡 추계에 적용된 자산별 내용연수, 원프리곡선 유형 및 효율계수(계속)

	시기별 내용연수		원프리곡선 유형	효율계수
	1985년 이전	1986년 이후		
지식재산생산물				
소프트웨어	8	6	L2	0.50
광물탐사	15		S3	1.00
R&D(산업별로 적용)				
농림어업	우측수명+2	9	L1	0.75
광업		10		
음식료품담배		9		
섬유의복가죽		9		
목재종이인쇄		9		
석탄석유		10		
화학제품		10		
비금속광물		10		
1차금속		10		
조립금속		10		
기계장비		10		
전기전자		5		
정밀기기		10		
운송장비		10		
기타제조업		9	S3	
전기가스증기		19		
수도환경		9	L1	
건설		11		
도소매		9		
음식숙박		9		
운수		9		
정보통신방송		9		
금융보험		9		
부동산임대		9		
전문사업서비스		10		
사업지원서비스		10		
공공행정국방		10		
교육		10		
보건사회복지		10		
문화및기타		9		
예술품원본				
방송	9	L1	0	
영화	5			
서적	10			
음반	10			